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성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4.05.23 14:11 수정 : 2024.05.23 14:11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지원체계 구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지난 17일 진행된 '2024년 제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지난 17일 진행된 교육에는 정신의료 기관 의료진과 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300여 명이 온·오프 라인으로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치료 전략(손지훈 서울대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위기 상황 관리: 자해 위험과 자살 예방 전략(강등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장기 관리와 회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접근(김성남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으로도 불리며, 비정상적 흥분 상태인 조증 삽화와 우울 상태인 우울증 삽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료 전략과 주변인들의 격려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은 양극성 장애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질환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

2세션에서는 '감정조절 능력 키우기'를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에서는 감정조절을 위해 상황을 객관화하고 긍정적 사고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응급환자 전문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며,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